

[지부장 담화문]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개정! 5.31 총파업 함께 합시다!

민주노조 탄압하는 살인정권!

윤석열정권의 노조탄압이 결국 건설노동자 양희동 동지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양희동 열사의 죽음 이후에도 건설노조 압수수색이 또다시 이뤄졌습니다. 정권의 노조탄압은 멈출 줄 모르고 몰아치고 있습니다.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개정!

주 69시간제로 노동자들을 과로사 하게 만들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분근로자대표제라는 이름으로 노조의 권한을 약화시킬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손배가압류를 제어할 수 있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국회에 발이 묶여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을 끝장내고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조법 개정을 쟁취하기 위한 5월 31일 총파업에 함께 합시다.

5월 31일 총파업! 테스트테크로 모입시다!

정권의 노조탄압이 거세지자 지역의 자본들도 노조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테스트테크 자본이 관리자 중심의 어용노조를 만들어 금속노조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총파업에 함께 하는 모든 조합원 동지들은 테스트테크로 모여주십시오. 윤석열 정권과 테스트테크자본에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함께 합시다!

2023년 5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장 박종우